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체계 실태와 융복합 정책 연구

장승옥*, 전호선**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A Study on the Condition of Prevention System and Convergence Policy for Smart Media Addiction

Seung-Ock Jang*, Ho-Sun Jeon**

Dep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Completion of Ph.D. Course,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월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체계, 융복합 정책, 개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and status quo of the smart media addiction prevention system and to develop convergence policies to improve those syste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notable results are as following; Since current facilities including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and I Will Center, tend to focus on restricting use of smart media, efforts from various ministries have not worked properly. Therefore, there needs to be more specified and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regions and ages. Following the precedent set by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to help solving the problem including recommending responsible use of social media through education rather than regulations only, encouraging family participation and intervention, expanding harmful environment block system, and establishing a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under central government's control. Since smart media addiction is emerging concern, further researches will be needed for developing the Korean standard for prevention policy.

Key Word : Smart Media, Addiction, Prevention System, Convergence Policy, Improvement

Received 9 June 2015, Revised 20 July 2015
Accepted 20 August 2015
Corresponding Author: Jang, Seung Ock
(Dep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Email: jseung@km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대사회는 생활 전반에 다양한 미디어매체가 활용되는 미디어 시대다. 컴퓨터 보급을 시작으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IT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스마트미디어가 급속한 발달을 이루고 있으며 미디어매체를 통한 다양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통화수단이 아니다. 음악, 동영상, 카메라, TV 시청, 정보검색 및 학습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은행업무, 회사업무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1,2].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미디어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의 부작용은 사용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스마트미디어를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미디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 중에는 한순간이라도 스마트미디어를 손에서 놓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스마트미디어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4]. 또한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폭력성 게임이나 음란물 등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유해매체에 노출로 인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5,6], 사이버공간에서 이러한 유해매체를 통한 쾌감을 추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반사회적인 문화도 문제점을 가증시킬 수 있다[7].

스마트미디어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사용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안장애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8]. 특히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해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다[9]. 뿐만 아니라, 스마트미디어의 장시간 사용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목과 척추에도 무리를 주며, 이는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

널 증후군, 디지털치매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10]. 또한 전문가들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인터넷 중독과 또 다른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미디어에의 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대책이나 통제수단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3].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사회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사회 스마트미디어중독 지원체계

2.1 스마트미디어 중독현황과 문제점

스마트미디어는 PC의 소형화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무선 전화 통신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이 추가된 휴대전화이며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결합된 이동식 멀티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스마트 미디어매체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시작으로 점차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공간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8만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범람 등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의 예방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스마트미디어가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성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의 편리함을 가져온 스마트미디어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과몰입 현상에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다한 미디어사용에 대하여 “중독”이라는 정신의학적 개념은 Goldberg(1996)[12]가 인터넷 과다사용이 약물 중독의 진단과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행위중독으로 개념화하면서 도입되었다[13]. 또 미디어중독은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과다한 집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개인의 조절 및 통제능력

이 상실되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4]. 미디어중독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미디어 자체의 특성,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 미디어 이용자가 속해 있는 환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결합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들 수 있지만[15],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미디어의 이용 동기 등의 상호작용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16].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스마트미디어 중독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29.2%, 20대 19.6%, 30대 11.3%, 40-50대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세 이상 59세 이하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 중독률은 11.1%로 전년대비 2.7%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률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 증가되었는데 이는 성인의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의 미디어매체 중독률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7].

2.2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미디어의 과몰입과 미디어 중독에 따른 문제점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독관련 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는 문화관광체육부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처간의 업무중복과 혼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체계 스마트쉽센터¹⁾

스마트쉽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각종 생활 장애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 4월에 설립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2015년 6월 스마트쉽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와 연계된 지역별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스마트쉽센터는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가정방문상담, 그리고 미디어중독관련 조사 및 연구 등 다방면으로 미디어중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²⁾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부모교육, 또래상담, 품성개발 등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복지사업의 개발 및 운영,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을 진행하고 인터넷 중독예방 전문상담자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예방 및 지원·대처능력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관련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은 일부 상담학 전공자에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많지 않다.

I WILL센터³⁾

I WILL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비롯한 집단프로그램, 학교적응 준비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 WILL센터는 치료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상담 및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의 의료적 접근과 지역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I WILL 센터는 서울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다른 지역의 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업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를 포함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청

1) <http://www.iapc.or.kr/>(April 2, 2015)

2) <http://www.kyci.or.kr/index.asp>(April 2, 2015)

3) <http://www.iwill.or.kr/>(April 2, 2015)

소년 권익을 보호 및 증진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 청소년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한 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병원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별 치료센터의 확보 및 홍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2.2 미디어 중독 예방지원체계의 문제점

우리사회의 미디어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체계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미디어의 과다사용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중독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연령별, 지역별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과 환경의 차이가 고려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중독예방 정책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및 보호라는 목적으로 상담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만 3세에서 9세까지 유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이용비율이 52%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17].

또한 미디어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원기관에서는 각 지방과의 네트워크 구축망을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의 설치나 운영, 프로그램의 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외국의 스마트미디어중독 지원체계

이번 절에서는 선진국의 미디어 중독 예방정책 및 지

원체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미국

미국의 경우는 미디어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차원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에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강한 억압적 제재보다는 민간 주도적 자율적 개입을 통한 실용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미디어중독예방 및 대응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중독 예방교육 및 중독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나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여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8].

2000년 의회에서 제정된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은 공립학교 및 공공시설에서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방안으로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등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금지시키는 기술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 편리성, 또는 필요성에 입각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연방 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또한 Young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터넷 중독센터(Center for Online and Internet Addiction)에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 치료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19,20].

또한 미국정부는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 강제보다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하고 학칙 등의 자율적인 규제¹⁾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영국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12~15세 청소년들의 87%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2%가 스마트폰을

1)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아이패드, 카메라 등 개인용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방과후 남기, 부모통지, 압수, 토요일 출석, 단기정학 등의 자체적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미디어 방송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텔레비전과 모바일 게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 또 부모 및 교사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CEOP의 Thinkuknow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한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2006년 정부기관이 중독문제와 관련, 온라인 보호 센터를 출범하였으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 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센터를 설립하여 각 지역마다 6개의 중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2].

미디어중독에 대한 영국과 유럽 지역의 정부나 전문가들은 미디어의 속성과 영향력에 대해 풍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적 관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견해는 2006년 6월부터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유럽 연구 프로젝트’(A Europe Research Project for the Appropriation of New Digital Media People)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19].

영국에서는 12~15세 자녀를 둔 18%의 부모들이 자녀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해사이트의 접근 차단하는 등 자녀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규칙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의 예방을 위하여 또래 사이버멘토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3 독일

독일의 미디어중독예방 정책은 지역사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며, 인간의 가치 및 미디어 교육의 증진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스스로 과다 사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책임감을 존중하고, 학교 교사들은 학교 내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율적 규제를 통한 개입을 강조한다.

청소년 유해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독일은 TV,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

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미디어매체를 제한하고 있다 [23].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미디어 약정이 있으며 2003년부터는 뉴미디어 청소년 보호법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독일은 자율규제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의 민영방송국과 인터넷의 청소년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영상물은 청소년의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방송시간대를 제한하고 있다[24].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위원회(Federal Department for Media Harmful to Young Persons: BPJM)에서 불법음란물로 판정된 매체는 방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V방송사에 청소년보호담당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자율규제기관과 정부의 협력체제로 자율규제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캠프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 대신 야외활동 등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25], 청소년보호 정책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독일의 JIM-Studie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잔인한 비디오물들이나 포르노그래피를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하여 쉽게 주고받는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보완을 위하여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3.4 일본

일본 정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6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 유인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7]. 또 2001년에 설립된 일본 인터넷 협회에서는 인터넷 동향조사를 통한 위기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 필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을 통한 중독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미디어 중독 정보의 안내 및 중독관련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부당한 요금 청구 피해 예방을 위하여 힘

쓰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규칙과 예절, 이용지침 등을 제작 배포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9, 28].

일본의 불법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아동포르노 규제 중심이며, 2005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불법·유해정보에 관한 정부 부처간 협조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유통방지를 위한 법률 방안으로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18].

일본 총무성이 마련한 「스마트폰 안심·안전이용촉진 프로그램(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利用促進プログラム)」(2012년 9월 발표)에 따라 공공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총무성은 스마트폰의 안전한 필터링 서비스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의 필터링 시스템 및 이용자의 연령확인시스템을 정비 및 청소년의 개인 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인터넷리터러시 교육과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필터링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은 우리에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4.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예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월센터 등 정부산하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방체계는 연령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규제중심의 예방정책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외국의 정책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하여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독 예방교육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스마트미디어 사용 예절을 습득하게 하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폐해 등의 부작용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며, 사용자 스스로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중독으로 가기 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디어매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또한 처벌이나 강제보다는 중독 대상자 스스로 혹은 외부의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화과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외국에서는 미디어사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미디어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양한 미디어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할 경우 미디어의 속성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사례에서처럼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대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등을 포함하는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모든 미디어매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이트의 접속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보안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인터넷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정보를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성인인증을 받고 있으며 성인인증이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전용 및 유해사이트는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요약하면 미디어중독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율적 규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해정보의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able 1> Issues and Alternatives for prevention policy

<p>Issues on Korean prevention system for smart social med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lack of epidemiological studies on smart media usage • regulation only focused on youth • a lack of accessibility and networking among prevention agencies • treatment rather than prevention • policy failure in customized prevention program based on ages and regions
<p>Policy precedent set by advanced countr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or research(USA) • various program reflecting smart media user characteristics(USA, UK, Germany) •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addiction prevention including family, school, and community(USA, UK, Germany) • institutionalization of blocking access to harmful media contents(Japan, UK) • self-regulation through responsible use training (USA, UK, Germany, Japan)

4.2 제언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미디어중독의 효과적인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처벌위주의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참여와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폭력,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쉽게 접촉하고 있으므로, 영국, 일본과 같이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마트미디어에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지자체, 민간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미디어중독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디어 중독예방은 공공 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신속한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

추어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의 제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스마트미디어의 사용목적이나 실태, 연령,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되고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예방 정책이 후속 연구를 통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K. Jung,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Focused on stress moderation effec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 34, pp. 199-224, 2014.
- [2] Y. M. Park, "A study on adults' smart 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peace, security &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in Sang-je University*. 2011.
- [3] D. Y. Oh & J. G. Lee, "A study on the usage, addiction and effects of smart media among adolescents", *Media, Gender & Culture*, Vol. 29, No. 3, pp. 125-158, 2014.
- [4] H. J. Kim, J. H. Kim & S. H. Jung, "Predicted factors and behavioral patterns of smart phone addiction", *Journal of Cyber 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29, No. 4, pp. 55-93, 2012.
- [5] S. C. Shin & S. G. Back,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on aggression",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9, No. 11, pp. 345-362, 2013.
- [6] M. O. Yoo, S. J. Joo & J. H. Kim,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smart phone addiction and their mental health and impulsive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4, pp. 409-418, 2014.
- [7] H. S. Hwang, S. H. Son & Y. J. Choe, "Exploratory research on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its functional

- attribut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5, No. 2, pp. 277-313, 2011.
- [8] H. S. Jeon & S. O.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 phone addiction: Focused on regulatory effects by gender”, Research on Adolescent, Vol. 21, No. 9, pp. 103-129, 2013.
- [9] Sheeber, L., Allen, N. B., Leve, C., Davis, B., Shortt, J. W., & Katz, L. F. “Dynamics of affective experience and behavior in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50, No. 1, 1419-1427. 2009.
- [10] B. Y. Kim, E. J. Ko & H. E. Choi, “A Study on a variety of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smart phone addiction: Focused on differences according to classified risky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3, pp. 67-98, 2013.
- [11] Wikipedia. http://en.m.wikipedia.org/?title=Children%27s_Internet_Protection_Act, April 11, 2015.
- [12] Goldberg.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World Wide Web. http://www.cmbc.com/mlists_research.html. 1996. April 12, 2015.
- [13] D. I. Kim, Y. H. Lee, J. Y. Lee, M. C. Kim, C. M. Keum, J. E. Nam, E. B. Kang & Y. J. “Chung, new patterns in media addiction: Is smart phone a substitute for the internet?”, Youth Counseling Studies, Vol. 20, No. 1, pp. 71-88, 2012.
- [14] B. S. Kim, “Exploratory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respect for a digital device In terms of media”, KADO Issue Report, Vol. 30, No. 3, pp. 391-427. 2006.
- [15] H. J. Wo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bile phone users’ self-traits on mobile phone addiction: Focused on self-esteem, self-efficacy &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1, No. 2, 391-427, 2007.
- [16] B. S. Kim. “A study on the preceding factors that affect a mobile messenger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3, pp. 95-103. 2014.
- [17]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urvey for Smart Phone Usage. 2014.
- [18] C. H. Lee, K. H. Kim & S. A. Jang, “A study on policy for protecting youths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smart phon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pp. 189-198, 2013.
- [19] J. B. Bang, Y. J. Lee & S. Y. Jung, “The status of media addiction and the prospects and measures of it in the future”,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ol. 8, No. 80, pp. 8-80. 2008.
- [20] K. E. Kim, The Status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and Its’ Political Measures. Master’s Thesis. Global Business Graduate School in Kyoung-hee University, 2009.
- [21] Ofcom. Children and Parents Media Attitudes-Smartphones Findings. 2012.
- [22] Korean Internet Law Institute, “A study on enacting a law against internet addiction. report”, Korean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8.
- [23] N. K. Park, KBS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pecial Edition. KBS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Seoul, p. 304, 2010.
- [24] J. S. Kang, “Research for issues and suggestions on media addiction : Focused on a meta-analysis of scholarly papers’ theme and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5, No. 4, pp. 106-108 2011.
- [25] Youth Media Protection Committee. Germany, <http://www.kjm-online.de>, April 15, 2015.
- [26] Siegfried Schneider(2015). KJM-Pressmitteilung 09/2015, <http://www.kjm-online.de/service/pressemitteilungen/detailansicht/article/kjm-pressemitteilung-092015-moderner-jugendmedienschutz-braucht-praxistaugliche-regelungen-kjm-st.html>, April 17, 2015.
- [27] Y. S. Yun, J. H. Yu, “A trend analysis of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Law and Institutions. Journal of Information Security”, Vol. 22, No. 3, pp. 25-36, 2012.

[28] Internet Association in Japan, <http://www.iajapan.org/hotline/seminar/20050324.html>. (2005)

장 승 옥(Jang, Seung Ock)



- 1995년 5월 : U.C. Berkeley 사회복지학박사
- 1988년 5월 : U.C. Berkeley M.S.W.
- 1995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4년 8월-현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운영위원장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중독예방
- E-Mail : jseung@kmu.ac.kr

전 호 선(Jeon, Ho Sun)



- 2013년 2월 : 계명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5년 7월 ~ 현재 : 계명대학교 BK플러스 인재양성사업단 참여대학원연구원

- 2015년 7월 현재 : 리더스교육상담 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미디어, 중독 예방
- E-Mail : jhs8987@kmu.ac.kr